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39-1호)

여론속의 여輿論論

2025 자녀·육아인식조사: 자녀 출산의 조건,
자녀 양육에 대한 감정

2025. 7. 16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자녀 계획

만약 자녀를 갖는다면 결혼 후 가능한 빨리 갖는 게 좋다 53%

2·30대, 미혼에서는 10명 중 3명 정도만이 ‘결혼 후 가능한 빨리 자녀 갖는 게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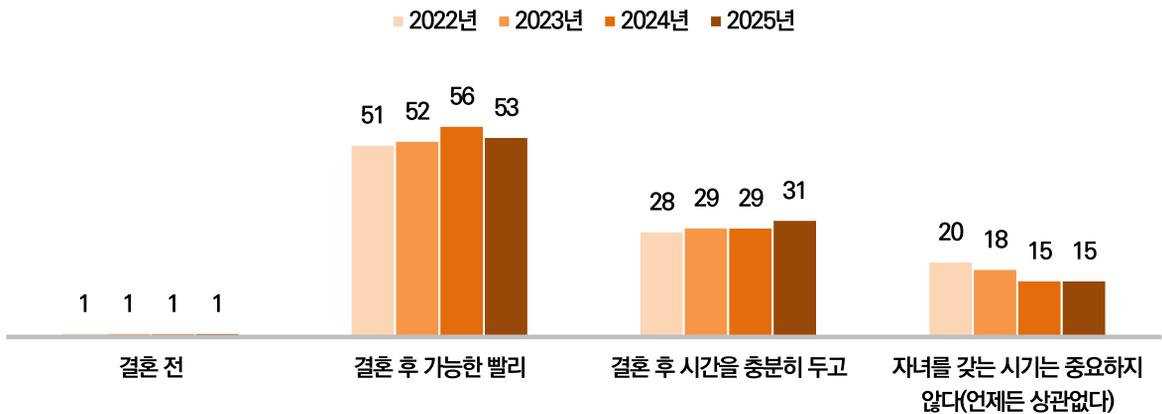
‘만약 자녀를 갖는다면, 언제 갖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결혼 후 가능한 빨리 갖는 게 좋다’는 의견이 53%로 다수이며, ‘결혼 후 시간을 충분히 두고 갖는 게 좋다’는 의견은 31%이다. 결혼 후 가능한 빨리 자녀를 갖는 게 좋다는 의견은 2022년 이후 꾸준히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결혼 후 자녀를 가능한 빨리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다수 의견이긴 하나, 결혼과 출산·양육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2·30대의 생각은 다르다. 18~29세에서는 27%, 30대에서는 35%만이 ‘결혼 후 가능한 빨리’ 자녀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며, ‘결혼 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자녀를 갖는 게 좋다는 의견이 각각 53%, 40%로 다수의견이다. 60대 이상에서 4명 중 3명(76%)이 ‘결혼 후 가능한 빨리’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답한 것과는 큰 차이이다.

남녀간의 차이도 크다. 남성 중 60%가 ‘결혼 후 가능한 빨리’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결혼 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자녀를 갖는 게 좋다는 의견(26%)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반면 여성은 ‘결혼 후 가능한 빨리’ 자녀를 갖는 게 좋다는 의견(46%)과 ‘결혼 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자녀를 갖는 게 좋다는 의견(35%) 간 차이가 크지 않다.

만약 자녀를 갖는다면 결혼 후 가능한 빨리 갖는 게 좋다 53%, 결혼 후 시간 충분히 두고 갖는 게 좋다 31%

(단위 : %)



질문: 만약 자녀를 갖는다면, 언제 갖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 6. 3. ~ 6. // 2023. 6. 9. ~ 12. // 2024. 4. 5. ~ 8. // 2025. 4. 4 ~ 7.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결혼 후 가능한 빨리’ 자녀를 가져야 한다, 18-29세 27%, 미혼 35%... 60세 이상은 76%
미혼 남녀 중에서는 10명 중 4명(41%)이 ‘결혼 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자녀 가져야 한다고 생각

(단위: %)

		사례수 (명)	결혼 전	결혼 후 가능한 빨리	결혼 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자녀를 갖는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언제든 상관없다)
전체		(1,000)	1	53	31	15
성별						
	남자	(495)	1	60	26	13
	여자	(505)	1	46	35	18
연령						
	18-29세	(153)	1	27	53	19
	30대	(150)	1	35	40	24
	40대	(173)	2	45	33	20
	50대	(195)	1	55	31	13
	60대	(178)	1	76	16	8
	70세 이상	(151)	1	76	14	9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80)	0	37	47	16
	여자_18-29세	(73)	1	17	60	22
	남자_30대	(78)	2	39	40	19
	여자_30대	(72)	0	30	40	30
	남자_40대	(88)	1	50	30	19
	여자_40대	(85)	2	40	36	22
	남자_50대	(98)	2	62	23	14
	여자_50대	(97)	1	47	40	12
	남자_60대	(87)	1	83	13	3
	여자_60대	(91)	1	68	19	12
	남자_70세이상	(64)	0	91	4	5
	여자_70세이상	(87)	1	66	22	12
혼인여부						
	미혼	(337)	2	35	41	22
	배우자 있음	(556)	1	61	27	12
	사별/이혼	(107)	1	67	20	1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18)	1	63	25	11
	자녀 없음	(382)	2	37	40	22

질문: 만약 자녀를 갖는다면, 언제 갖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4. 4 ~ 7.

첫째 아기 갖기에 적절한 나이, 남성은 만 30세(33%), 만 35세(18%) 등... 평균 31.6세 여성은 만 30세(28%), 만 28세(19%) 순... 평균 29.5세

첫째 아이를 갖기에 좋은 나이를 남녀 구분해 확인해 보았다. 남자가 첫째 아이를 갖기에 가장 좋은 나이로, 33%가 '만 30세'라고 답했다. 이어서 '만 35세(18%)', '만 32세(11%)' 등의 순이다. 구간으로 나눠 보면, 만 30~32세가 남성이 첫째 아이를 갖기에 적절하다는 의견이 46%로 가장 많고, 만 33~36세(30%), 만 27~29세(12%) 등의 순이다. 평균 나이는 31.6세이다.

여자가 첫째 아이를 갖기에 가장 좋은 나이 역시 '만 30세'가 28%로 다수이다. 이어서 '만 28세(19%)', '만 25세(8%)', '만 27세(7%)' 등 어려지는 경향을 보인다. 구간으로는 만 30~32세(37%), 만 27~29세(31%), 만 26세 이하(17%), 만 33~36세(12%) 등의 순이다. 평균 나이는 29.5세로, 남성 대비 2.1세 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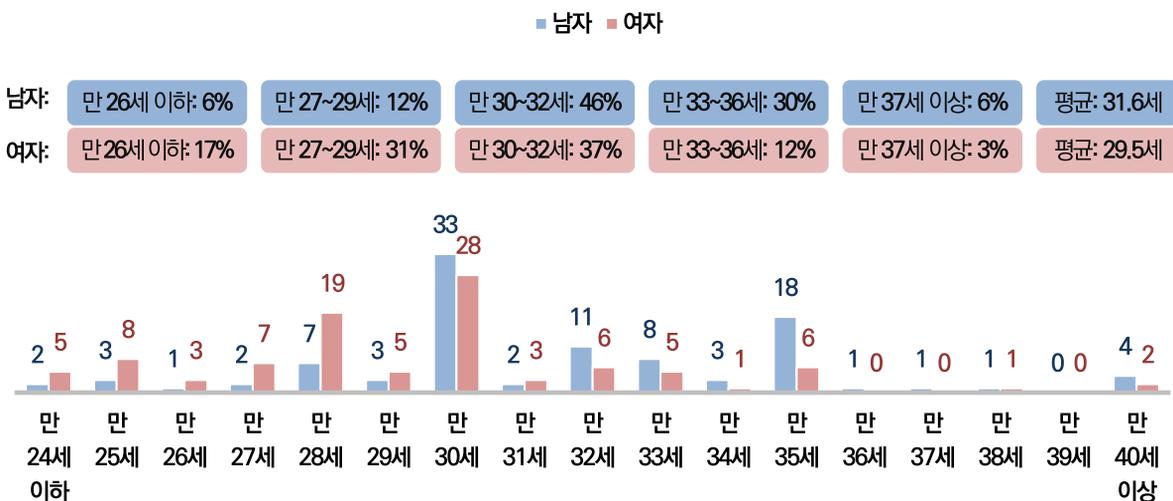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혼인통계에 따르면, 첫째 출산 시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3.1세이다. 첫째 아이를 갖기에 이상적인 여성의 나이와 실제로 여성이 첫째 아이를 낳는 나이 간 차이는 3.6세로, 적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첫째 아이를 갖기에 적절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성이 여성의 나이 차이는 2.1세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전통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좀 더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게 적절하다는 인식이다. 18~29세는 첫째 아이를 갖기 적절한 남녀의 나이를 각각 32.1세, 30.7세로 잡았고, 30대 또한 각각 남성 32.1세, 여성 30.2세에 첫 아이를 갖기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첫 아이를 갖기 적절한 나이로 남성 30.8세, 여성 28.6세라고 답해, 남녀 모두 각각 2·30대 대비 2살 가량 차이를 보인다.

남녀간의 인식 차이도 확인된다. 남성이 여성보다, 남녀 모두 좀 더 이른 나이에 첫 아이를 가지는 게 좋다는 인식이다. 남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이는 남성 31.1세, 여성 28.7세인 반면, 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이는 남성 32.1세, 여성 30.2세이다. 특히 18~29세 여성의 경우, 남성은 33.7세, 여성은 32.6세에 첫 아이를 갖는 것이 좋다고 답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늦다. 동년배 남성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18~29세 남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이는 남성 30.7세, 여성 29.0세). '여론 속의 여론'팀이 지난 3월 21일 ~ 24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 나이를 물었을 때에도, 18~29세 여성은 남녀의 이상적인 결혼 나이를 각각 33.8세, 32.9세라고 답해 전체 평균(남성 32.6세, 여성 30.1세) 대비 1살 이상 많았다. 결혼과 육아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젊은 여성은, 결혼과 자녀 양육에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첫째 아기 갖기에 적절한 나이, 남성은 만 30세(33%), 만 35세(18%) 등... 평균 31.6세
여성은 만 30세(28%), 만 28세(19%) 순... 평균 29.5세

(단위 : %)



질문: 만약 자녀를 갖는다면, 첫째 아이는 몇 살에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녀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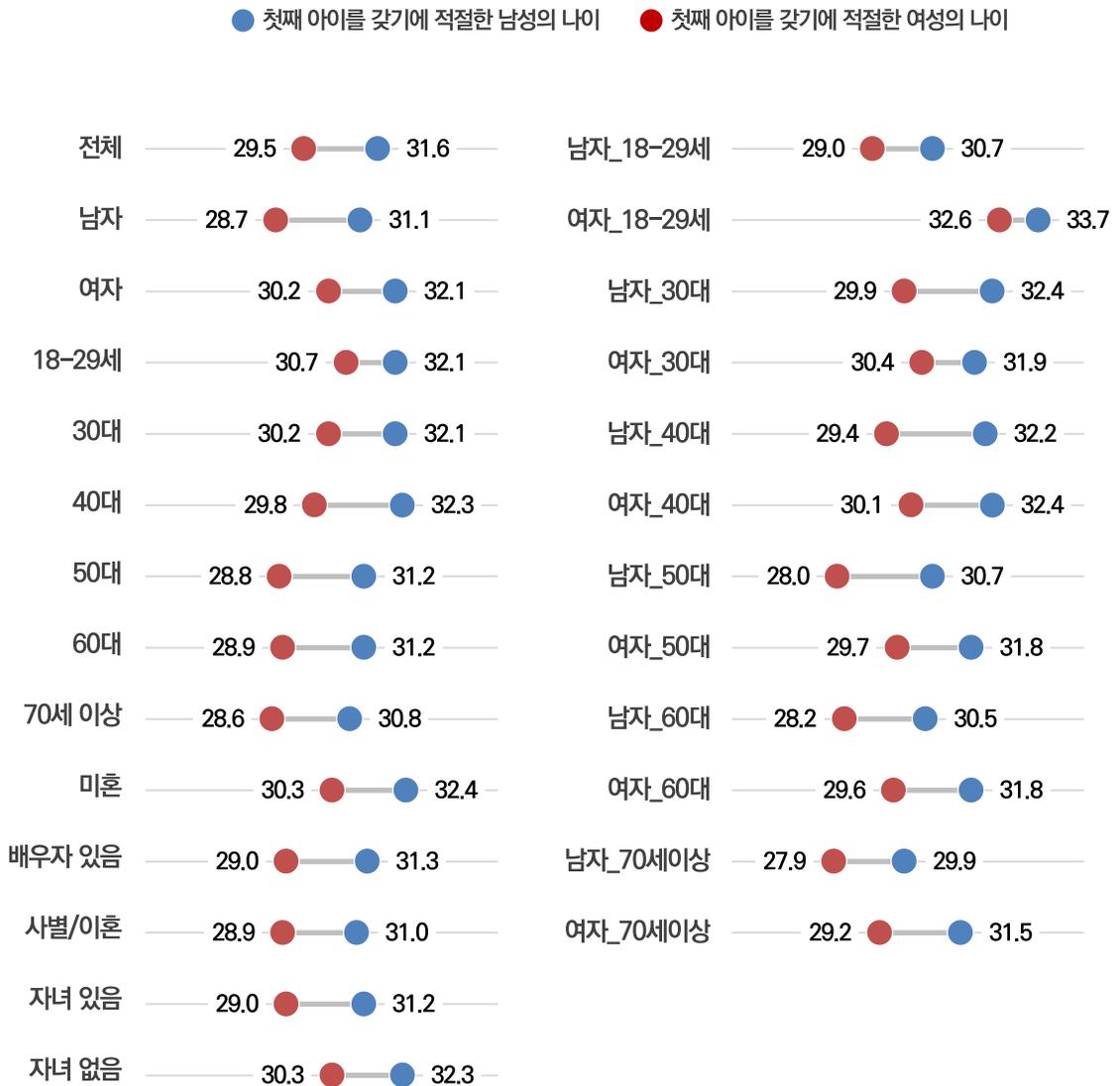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4. 4 ~ 7.

적절한 결혼 나이보다 적절한 자녀 출산 나이가 더 낮게 나온 건, 이상적인 결혼과 출산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적절한 결혼 시점을 고려 할 땐 경제적·직업적 안정성을 생각하지만, 적절한 자녀 출산 시점을 고려할 땐 여기에 더해 생물학적·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시기까지 고려하게 된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별개로 인식하는 관점 또한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첫째 아이 갖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나이 늦어
특히 18-29세 여성은 남자 33.7세, 여자 32.6세가 첫 아기 갖기 이상적인 나이라고 인식**

(단위 : 세)



질문: 만약 자녀를 갖는다면, 첫째 아이는 몇 살에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녀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4. 4 ~ 7.

향후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자녀를 (더) 갖고 싶은 사람은 23%, 18-49세로 한정하면 27%

전체 응답자 중, 향후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자녀를 (더) 갖고 싶은 의향이 있는 사람은 23%이다. 18-49세 남녀로 한정하면 27%로 올라간다(18-29세 28%, 30대 24% 40대 28%). 다만, 18-49세 남녀 중 자녀를 (더) 가질 의향이 없는 사람이 50%로 절반이고, 2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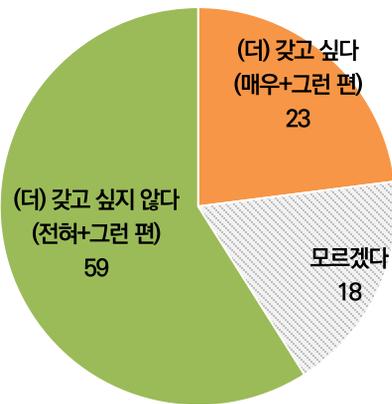
18-49세로 한정하면, 미혼인 사람 중에서는 23%만이 자녀를 갖고 싶다고 답했다.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사람이 47%로 절반에 이른다. 앞서 [미혼 남녀 중 '내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43%](#)로 절반에도 못 미친 것과 연결해 보면, 미혼 남녀는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도, 실제 자녀를 가질 의향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현재 기혼인 사람 중 34%, 자녀가 있는 사람 중에서 37%가 자녀를 더 갖고 싶다고 답했다. 다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큰 편이다. 기혼 남성 중에서는 45%, 현재 자녀가 있는 남성 중에서는 46%가 앞으로 자녀를 더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반면, 기혼 여성 중에서는 26%, 자녀가 있는 여성 중에서는 29%만이 자녀를 더 갖고 싶다고 답해 미혼 여성과 큰 차이가 없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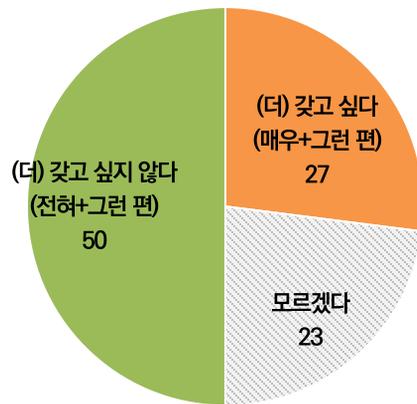
향후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자녀를 (더) 갖고 싶은 사람은 23%,
만 18-49세로 한정하면 27%

(단위: %)

전체(만 18세 이상)



만 18-49세



질문: 향후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자녀를 (더)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응답자 수: 전체 1,000명, 만 18-49세 476명

조사기간: 2025. 4. 4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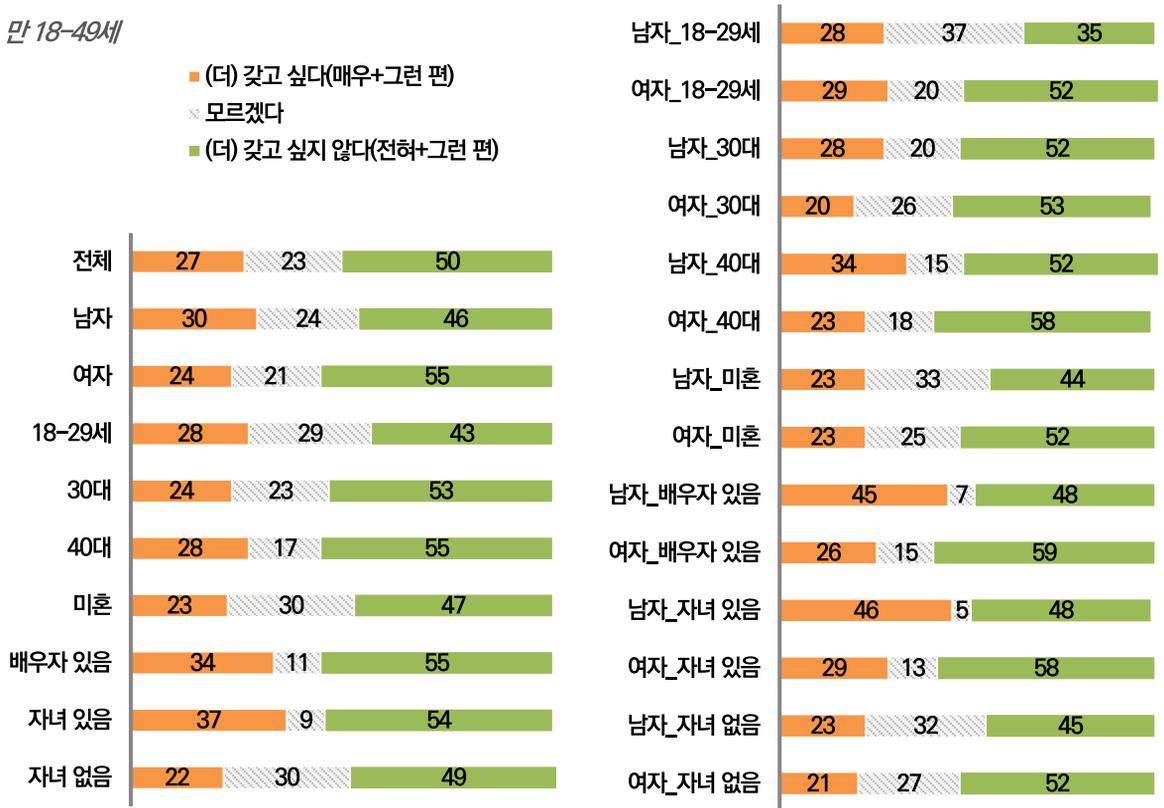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18-49세로 한정하면, 미혼 남녀 중 앞으로 자녀를 (더) 가질 의향이 있는 사람은 23%
기혼, 현재 자녀가 있는 사람은 3명 중 1명 정도가 자녀 더 가질 의향 있지만, 남녀 차이는 커**

(단위 : %)

만 18-49세

- (더) 갖고 싶다(매우+그런 편)
- ▨ 모르겠다
- (더) 갖고 싶지 않다(전혀+그런 편)



질문: 향후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자녀를 (더)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4. 4 ~ 7.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출산·입양 결정시 고려 조건

자녀를 (더) 갖기 위한 중요한 고려 요인은 '안정적인 소득과 재정 상태', '파트너와의 안정적 관계'

앞으로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자녀를 (더) 가질 의향이 있는 230명(18-49세 129명)에게, 어떤 조건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소득과 재정 상태(59%)', '결혼 등 파트너와의 안정적 관계(55%)'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 18-49세 응답자로 한정해도 '안정적인 소득과 재정 상태(67%)', '결혼 등 파트너와의 안정적 관계(61%)'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의견이 60%를 넘는다. 경제적·관계적 안정성이 자녀를 갖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반면 가족 및 지인의 양육 지원(전체 26%, 18-49세 31%), 배우자와의 공평한 육아 분담(전체 33%, 18-49세 35%), 양질의 보육·교육 시설 접근성(전체 39%, 18-49세 41%) 등 양육 환경과 관련해서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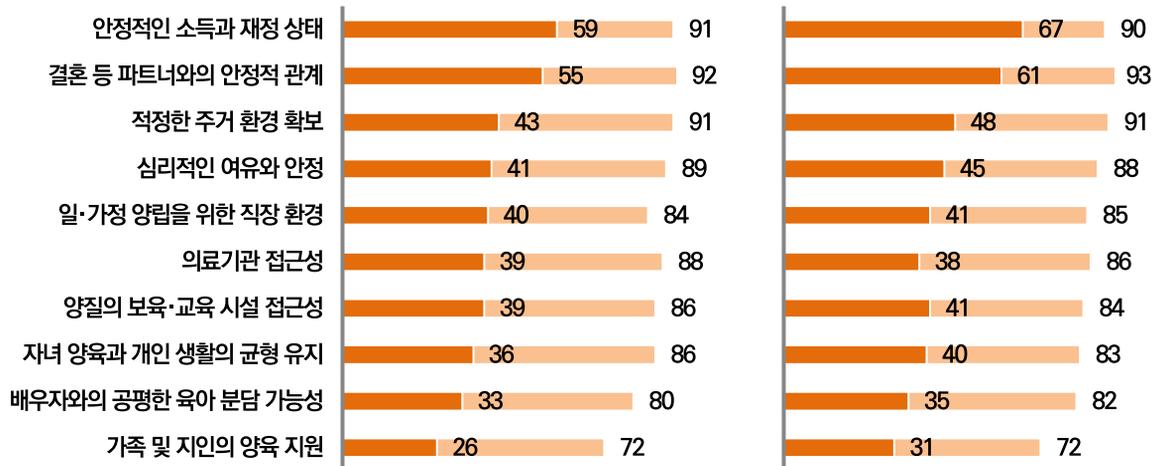
자녀를 (더) 갖기 위한 중요한 고려 요인은 '안정적인 소득과 재정 상태', '파트너와의 안정적 관계'

(단위: %)

전체

만 18-49세

■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 ■ 중요하게 고려한다(매우+그런 편)



질문: 자녀를 (더) 가질 때, 다음 각 조건을 어느 정도로 고려하십니까?

응답자 수 : 향후 출산 혹은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 230명 (만 18-49세 129명)

조사기간: 2025. 4. 4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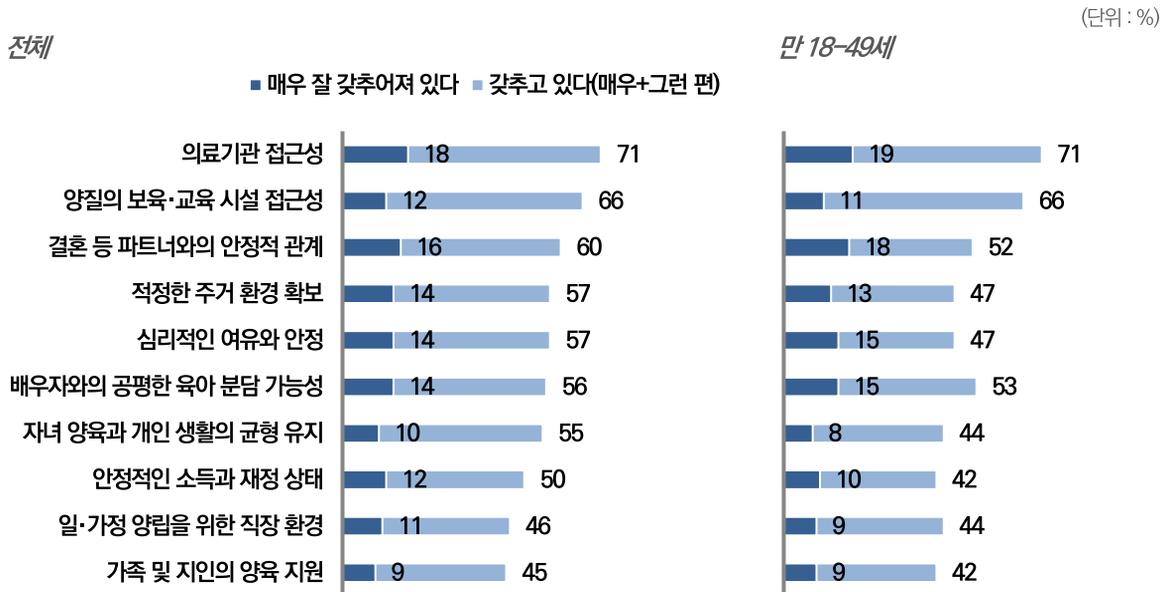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자녀를 (더) 갖기 위해 현재 갖춰진 조건, '의료기관' 및 '양질의 보육·교육 시설' 접근성 경제적 준비가 갖춰졌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각각의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매우 혹은 대체로 갖추어져 있다는 평가를 종합해 보면, '의료기관 접근성(71%)', '양질의 보육·교육 시설 접근성(66%)'을 갖췄다는 사람이 많다. 18-49세 응답자 역시 '의료기관 접근성(71%)' 과 '양질의 보육·교육 시설 접근성(66%)'은 다수가 갖춰져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인 '안정적인 소득과 재정 상태'가 잘 갖춰져 있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50%, 18-49세에서는 42%만이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해, 다른 조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자녀를 (더) 갖기 위해 현재 갖춰진 조건, '의료기관 접근성'과 '양질의 보육·교육 시설 접근성' 경제적 준비가 갖춰졌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



질문: 그렇다면 자녀를 (더) 갖기 위해, 다음 각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응답자 수 : 향후 출산 혹은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 230명 (만 18-49세 129명)

조사기간: 2025. 4. 4 ~ 7.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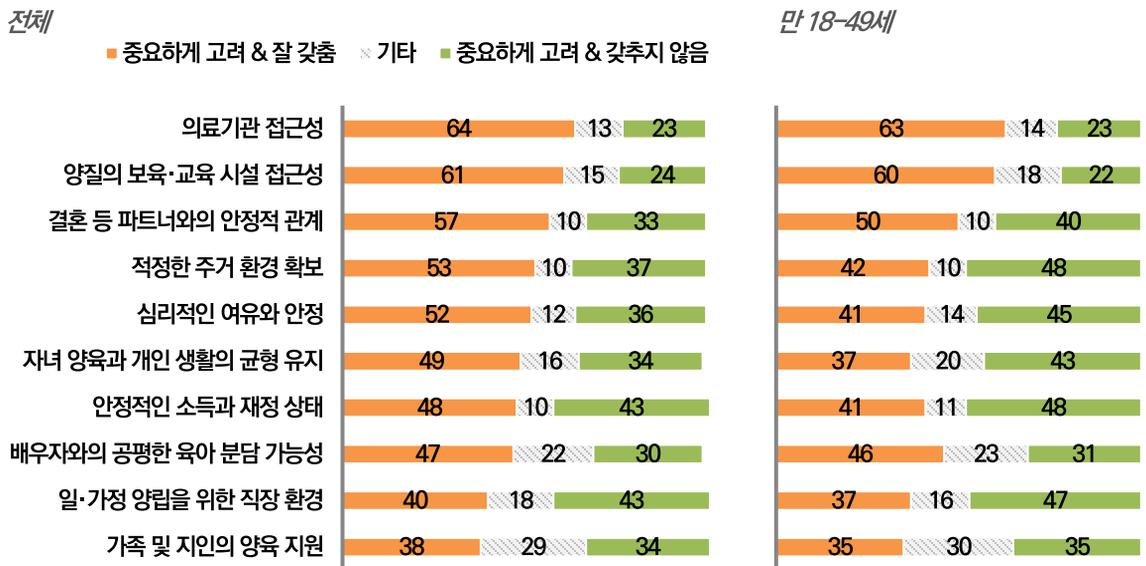
의료기관, 보육시설 접근성은 자녀를 (더) 갖기 위해 중요하면서, 현재 잘 갖추어진 조건 안정적인 소득, 일·가정 양립 위한 직장환경 등은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갖추어진 조건

아이를 가질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과 실제 갖추고 있는 조건을 교차해 보면, 어떤 점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자녀를 (더) 가질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동시에, 현재 갖추고 있는 조건은 '의료기관 접근성(64%)', '양질의 보육·교육 시설 접근성(61%)', '결혼 등 파트너와의 안정적 관계(57%)' 의 순이다. 18-49세 응답자로 한정해도 이 세 개 조건은 중요하면서, 동시에 현재 갖춰져 있다는 사람이 절반 혹은 그 이상이다.

반면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갖춰진 조건도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환경'이 중요하지만,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사람이 전체 43%, 18-49세 47%이다. '안정적인 소득과 재정 상태' 또한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이지만 아직 못 갖췄다는 사람이 전체 43%, 18-49세 48%로 많다. '적당한 주거 환경' 또한, 18-49세의 48%가 중요하지만, 아직 못 갖춘 조건이라고 답했다.

의료기관이나 보육시설 등 자녀를 낳고 기르기 위한 인프라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평가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경제력이나, 주거·직장 등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의료기관, 보육시설 접근성은 자녀를 (더) 갖기 위해 중요하면서, 현재 잘 갖추어진 조건
안정적인 소득, 일·가정 양립 위한 직장환경 등은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갖추어진 조건 (단위 : %)



질문: 자녀를 (더) 가질 때, 다음 각 조건을 어느 정도로 고려하십니까? // 그렇다면 자녀를 (더) 갖기 위해, 다음 각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고: 기타 항목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음 & 잘 갖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음 & 갖추지 않음', '모르겠다' 의 합

응답자 수 : 향후 출산 혹은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 230명 (만 18-49세 129명)

조사기간: 2025. 4. 4 ~ 7.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자녀 양육에 관해 느끼는 감정

자녀 양육에 대한 감정, 책임감-경제적 부담-행복-즐거움 등의 순

‘자녀 양육’을 떠올릴 때 ‘행복’, ‘감사함’, ‘성취감’, ‘즐거움’, ‘인간적 성숙’, ‘도전’, ‘책임감’, ‘어려움’, ‘희생’,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 등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를 물었다.

‘많이 느낀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책임감(67%)’이다. ‘경제적 부담(57%)’과 ‘행복(46%)’이 그 뒤를 잇고, ‘즐거움(39%)’, ‘희생(39%)’, ‘어려움(38%)’, ‘감사함(37%)’, ‘정신적 부담(37%)’, ‘인간적 성숙(35%)’ 등이 큰 차이 없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긍정적인 감정만큼이나, 부정적인 감정과 책임감을 같이 느끼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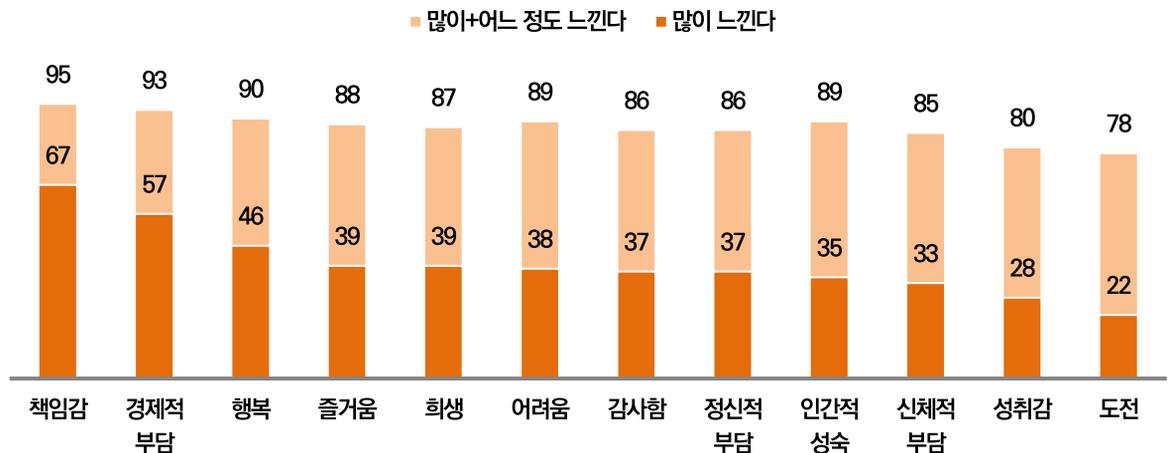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크게 느낀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서 남녀간 차이가 크다. ‘신체적 부담(남성 25%, 여성 42%)’, ‘어려움(남성 31%, 여성 44%)’, ‘희생(남성 32%, 여성 45%)’ 등에서 남녀 간 감정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며, ‘정신적 부담’이나 ‘경제적 부담’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느낀다.

특히 본격적으로 자녀 양육을 고민하고, 시작하는 시점인 30대 여성의 부담감이 크다. 30대 여성은 ‘경제적 부담(74%)’, ‘어려움(66%)’, ‘희생(64%)’, ‘신체적 부담(64%)’, ‘정신적 부담(59%)’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모두 절반을 훌쩍 넘는다. 같은 세대 남성과 비교해도 그 격차는 크다.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높아진다. 60대와 70세 이상은 각각 54%, 55%가 ‘행복’을 많이 느끼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각각 50%, 48%이다. 반면 ‘희생’이나 ‘어려움’, ‘정신적 부담’, ‘신체적 부담’ 등을 많이 느낀다는 6·70대는 30% 내외로 전체 평균과 비슷하거나, 더 적은 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든 기억보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더 오래 간직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에 대한 감정, 책임감-경제적 부담-행복-즐거움 등의 순

(단위 : %)



질문: ‘자녀 양육’을 떠올릴 때, 다음 각각의 감정을 얼마나 많이 느끼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4. 4 ~ 7.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도 크게 다르다. ‘행복(자녀 있음 55%, 자녀 없음 31%)’, ‘즐거움(자녀 있음 48%, 자녀 없음 24%)’, ‘감사함(자녀 있음 44%, 자녀 없음 26%)’ 등 자녀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두 배 가량 많다. 반면 자녀가 없는 사람은 ‘경제적 부담(자녀 있음 51%, 자녀 없음 68%)’, ‘어려움(자녀 있음 32%, 자녀 없음 48%)’, ‘신체적 부담(자녀 있음 28%, 자녀 없음 42%)’ 등을 더 많이 느낀다. 실제 자녀 양육의 경험이, 긍정적인 감정은 높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낮춰주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은 남성보다 특히 자녀 양육에 대해 부정적 감정 많이 느껴
고령층, 자녀가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도 많이 느끼고 있어**

(단위 : %)

	사례수 (명)	긍정적 감정					중립적 감정		부정적 감정				
		행복	즐거움	감사함	인간적 성숙	성취감	책임감	도전	경제적 부담	희생	어려움	정신적 부담	신체적 부담
전체	(1,000)	46	39	37	35	28	67	22	57	39	38	37	33
성별													
남자 (495)		42	36	33	30	27	62	17	53	32	31	32	25
여자 (505)		49	41	42	39	30	72	27	62	45	44	42	42
연령													
18-29세 (153)		32	20	26	36	18	62	31	65	36	42	41	39
30대 (150)		37	28	31	35	26	78	34	68	58	57	51	53
40대 (173)		42	37	29	28	21	67	17	55	40	41	37	36
50대 (195)		51	45	42	33	29	68	17	57	37	32	32	26
60대 (178)		54	50	45	39	35	66	19	49	34	29	31	27
70세 이상 (151)		55	48	49	37	41	60	20	51	28	28	33	23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80)		35	22	29	38	23	53	28	51	21	34	31	28
여자_18-29세 (73)		30	19	22	34	12	73	35	80	52	51	52	51
남자_30대 (78)		31	24	26	26	27	72	26	61	52	48	43	43
여자_30대 (72)		43	32	37	46	24	85	43	74	64	66	59	64
남자_40대 (88)		39	35	27	26	22	65	17	54	33	37	32	27
여자_40대 (85)		45	40	30	30	20	70	16	57	47	46	42	44
남자_50대 (98)		43	39	36	27	22	59	10	57	32	26	24	16
여자_50대 (97)		60	51	48	39	35	76	23	57	43	39	39	36
남자_60대 (87)		45	43	34	28	29	57	9	40	24	18	24	17
여자_60대 (91)		63	56	56	50	41	75	29	58	44	39	37	36
남자_70세이상 (64)		62	55	45	38	42	68	17	55	34	26	38	19
여자_70세이상 (87)		50	43	52	36	41	54	21	49	23	29	29	25
혼인여부													
미혼 (337)		30	22	26	32	19	65	27	67	41	47	43	41
배우자 있음 (556)		55	48	43	37	33	70	20	52	38	33	34	31
사별/이혼 (107)		46	43	44	34	32	60	21	54	36	32	33	2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18)		55	48	44	37	34	67	20	51	37	32	32	28
자녀 없음 (382)		31	24	26	32	20	66	27	68	42	48	44	42

질문: '자녀 양육'을 떠올릴 때, 다음 각각의 감정을 얼마나 많이 느끼십니까?

비교: '많이 느낀다' 응답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4. 4 ~ 7.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25년 3월 기준 약 9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22,417명, 조사참여 2,277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4.5%, 참여대비 43.9%)
조사일시	• 2025년 4월 4일 ~ 4월 7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HankookResearch

